

OECD ICOM Webinar

2020.4.10.(금) 14:00-15:30 (CET)

<녹취본>

https://www.youtube.com/watch?v=PlO_8VWMU6o

코로나 19와 뮤지엄: 영향과 혁신, 그리고 위기 이후의 계획¹⁾

사회자: 에카테리나 트라프키나(Ekaterina TRAVKINA),

OECD 문화·창의산업과 지역 개발, 코디네이터

발표자:

- 피터 켈러(Peter KELLER), ICOM 사무총장, 오스트리아
- 마티아 아그네티(Mattia AGNETTI), 베네치아 시립박물관 재단 사무총장, 이탈리아
- 나탈리 본딜(Nathalie BONDIL), 몬트리올 미술관 관장/학예실장, 캐나다
- 후앙 로카(Joan ROCA), 바르셀로나 역사박물관 관장, 스페인
- 장인경(Inkyung CHANG), 철박물관 관장, 대한민국
- 존 데이비스(John DAVIES), 네스타 창의 산업 정책과 증거 센터(PEC/Nesta), 경제 연구원, 영국
- 안토니오 람피스(Antonio LAMPIS), 이탈리아 문화유산 관광부(MIBACT), 박물관 담당 사무국장
- 마치에 호프만(Maciej HOFMAN), 유럽 연합 교육문화 총국, 정책관
- 피에르 루이지 사코(Pier Luigi Sacco), OECD 교육문화위원회 특별고문, IULM 대학 문화 경제학 교수, 이탈리아

현재 위기는 순식간에 수익 창출 기회를 상실한 대부분의 문화·창의 분야에 큰 타격이며, 취약한 종사자에게는 더 크다. 국공립 뮤지엄, 도서관
--

1) 본 문서는 2020년 4월 10일 진행된 OECD ICOM 웨비나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말 번역은 웨비나 참가자들의 동의를 받아 국립중앙박물관과 ICOM KOREA 미래위원회가 작성하였다. 우수연(국립중앙박물관, ICOM ICTOP)이 초안을 작성하고, 박연희(국립중앙박물관, ICOM CECA), 백승미(국립중앙박물관, ICOM ASPAC), 장인경(철박물관, ICOM KOREA)과 한주연(리움, 삼성미술관, CIMAM)이 나누어 감수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 박물관·미술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등 관련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OECD와 ICOM의 공식 문서가 아니다.

과 극장은 공공 자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상당한 예산 삭감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분야에는 넷플릭스와 같이 주요 다국적 기업도 있지만, 필수적인 많은 중소기업과 프리랜서 전문직 종사자는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위기는 문화와 창의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과 노동자의 생존에 구조적인 위협을 불러 왔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를 위한 문화와 창의성의 중요함은 분명하다. 문화 콘텐츠의 가용성은 정신 건강과 웰빙에 기여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많은 문화기관이 최근 몇 주 동안 온라인과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위기의 초기와 그 이후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은 분야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영역의 더 취약한 부분을 남겨두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과제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완화하고, 중기적으로 문화와 창의 산업에 속한 다양한 공공, 민간 및 비영리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찾아주는 공공 지원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 웨비나는 OECD와 ICOM이 공동으로 조직하였다.

Ekaterina TRAVKINA

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문화와 창의 분야는 현재 코로나 19 사태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OECD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전례가 없는 이런 사태가 우리 분야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고, 도시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는 4월에 연속적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뮤지엄을 시작으로, 다음 금요일에는 폭넓게 문화·창의 영역을,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디지털 아카데미를 통해 이 분야의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를 위한 훈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Peter Keller 개회사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그에 따른 사회의 봉쇄는 문화와 창의 분야뿐 아니라 뮤지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ICOM이 시작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뮤지엄이 문을 닫았으며, 현재 5% 정도가 개관한 상태이다.

사회적 봉쇄와 휴관의 재정적 영향은 뮤지엄의 소유권, 자금과 규모에 따라 다르다. 유럽 NEMO(유럽뮤지엄네트워크/Network of European Museum Organizations) 조사에 따르면 관광 지역의 대형 뮤지엄을 포함하여, 뮤지엄은 한 달에 최대 600,000유로까지 수입의 75~80%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입장권과 소매 수입의 비율이 높을수록 뮤지엄의 모든 활동과 직원에 대한 영향이 더 즉각적이며 더 큰 영향을 끼친다. 공공 재정이 지원하는 뮤지엄은 직원들에게 당장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후에 공공 예산이 줄어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보존전문가나 독일의 교육전문가 등 프리랜서 뮤지엄 전문직은 현재 수입이 사라졌다. 독일의 예로 약 7,000여 명의 전문가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뮤지엄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고 있으며 휴관 기간 온라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에서는 뮤지엄 웹사이트 방문이 최대 500% 증가하였다. 5월 18일에 개최되는 ‘세계 박물관의 날’ 행사는 올해 인터넷에서 진행할 것이다.

ICOM은 전 세계의 뮤지엄과 전문직을 지원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뮤지엄 분야 모니터링, 전문직 지원, 온라인 활동, 보존, 보안 등 공동체 복원에 대한 권장 사항 및 모범사례를 알리는 것이다. 또한, ICOM은 정책 의사 결정자들이 뮤지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호 기금을 신속하게 할당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ICOM은 뮤지엄과 각 국가 위원회를 옹호하는 지침을 만들어 지역 경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복지와 회복에도 뮤지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작년에 OECD와 ICOM이 공동으로 발간한 뮤지엄과 지역 개발에 관한 가이드도 중요한 수단이다.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과 사회적 봉쇄는 다방면의 전례가 없는 도전을 뮤지엄 분야에 제기한다. ICOM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인 대다수가 뮤지엄의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응답자의 25%는 직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 중 10%는 본인이 속한 뮤지엄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것을 우려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뮤지엄을 존속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노력과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 건강 문제일 뿐 아니라 개발 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뮤지엄은 이미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데, 다양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은 한번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뮤지엄이 이전과 같이 현 상황에 잘 대처할 것

이라고 확신한다.

이 웹 세미나 개최에 대해 OECD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ICOM을 대표하여 연사들을 환영하며, 여러분의 성찰과 기여를 기대한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내용은 문화, 창의 분야 등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도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감사합니다.

Ekaterina TRAVKINA

국공립, 사립 뮤지엄의 수입이 줄고 있고, 미국박물관연맹(American Alliance of Museums, AAM)이 예상하기는 30% 미국 뮤지엄도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문을 열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뮤지엄이 매우 중요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여건도 되지 않을 수 있다. 뮤지엄 업무와 관련한 작은 사업체나 프리랜서는 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전 세계 뮤지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디지털 뮤지엄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디지털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루브르의 경우, 예전에는 하루에 사만 명이 웹사이트를 방문했다면, 이제는 사십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뮤지엄은 디지털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국제적, 국내적 협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모두 자신의 자원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움직임이다. 정부는 뮤지엄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세금 등을 경감 해주고 있다.

작년 교토에서 OECD는 ICOM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 뮤지엄을 위한 지침서’를 출판하였다. 이 지침서는 지역 경제와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뮤지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뮤지엄은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의 버팀목이며, 전 세계에 걸쳐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한다. 뮤지엄은 학교와 감옥, 병원과 고용센터 등 여러 파트너와 함께 지역의 웰빙과 사회적 포용에 이바지하며, 특히 이 위기를 회복하는데 더욱 중요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폭넓은 시각에서 오늘 토론을 하려고 한다.

1. 코로나 19로 인한 뮤지엄 폐쇄의 장단기적인 영향

Nathalie BONDIL

뮤지엄마다 각각 상황이 매우 다르고 다양하다. 프랑스와 오타와의 국립기관은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나 미국의 사립 뮤지엄은 직원을 80%까지 해고하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곳도 있다. 우리 뮤지엄은 사립이라도 주 정부 기금을 받아 운영하지만, 관장 혼자 남은 뮤지엄도 있다. 이런 경우는 사상 초유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창의적인 기회를 잡아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성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Mattia AGNETTI

공립이나 사립 등 뮤지엄의 운영 형태에 따라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모두 절대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주 예외적인 공립기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입장권을 발권할 수 없으며, 완전 휴관 상태이고 몇 주가 걸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정상화되기에는 적어도 1년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나탈리의 지적대로 직원들의 고용상태에 대한 문제가 크며, 당장 우리 뮤지엄의 경우만 해도 직원들의 고용계약이 중단되었다. 차로 비유하면 빠르게 달리던 차가 느리게 가면서 엔진이 살아만 있는 상태처럼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업무만 하고 있다. 이전에는 문화적이고 과학적 콘텐츠의 제공에 있어서 디지털 서비스가 옵션이었다면 지금은 그 서비스만 제공되는 상황이 되었다.

또, 다른 이슈로는 매체의 관점에서 사립이나 공립 뮤지엄의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프로젝트가 잠재적으로 제한이 되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줄이게 되었기 때문이며, 유럽의 몇몇 나라,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미래를 위한 우리 사회의 엔진으로서 문화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덧붙인다면, 뮤지엄이 자신들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자원이 부족하므로 기관들 사이의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물론,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겠지만, 보다 보편적인 연대를 하려면 문화적인 프로젝트뿐 아니라 모든 뮤지엄 직원과 사람들이 참여하여, 교류하며, 서로의 노하우와 역량을 배울

수 있는 연대이길 바란다.

Joan ROCA

나탈리가 말한 대로 지금 위기 상황이 미치는 영향은 뮤지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입장권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뮤지엄의 침체는 즉각적이거나, 대부분 예산을 공공 자금이 지원하는 뮤지엄은 타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뮤지엄이 이런 상황에 고립되어 있지 않다. 뮤지엄은 예를 들어, 문학, 연극, 극장 등 다양한 전문가와 사업체가 일하는 복합적인 문화, 사회, 그리고 경제 구조를 다 포함하는 큰 빙산의 작은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정책 입안자들이 뮤지엄을 말할 때, 뮤지엄이 거대한 문화 생태계의 꼭대기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문화 생태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직업들이 있으며, 많은 종류의 다양한 일을 한다. 전에는 이 중 대부분의 일이 외부에 위탁되었다. 예를 들어, 소장 자료의 보존과 복원, 지식 창출을 위한 연구와 지식 공유를 위한 강의와 세미나, 전시 기획, 영상, 도서 출판, 앱, 공공프로그램과 활동, 사회 참여적 프로젝트, 교육 방문, 조기 개방, 설비 관리 등 대중을 위한 복합적인 문화 생태계가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 경우와 같이 정부가 지원하여 모두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일시적이라 해도 많은 사람이 해고되었고 뮤지엄 전문직 네트워크가 극히 취약하여 사라질 수 있다. 이는 201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큰 피해를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업체가 회복하고 있었는데 현재 다시 문제가 되었다. 말하자면 뮤지엄이 이러한 생태계 빙산의 가장 높은 지점에 있으므로, 우리가 중, 장기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풍부한 문화 생태계를 몇몇 큰 회사들만 주도하다가 이런 회사들이 무너지면 매우 위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건 정책이,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증강할 뮤지엄을 위한 마샬정책(the European Recovery Program, 세계2차대전 이후 1948년 시작된 미국의 서유럽 재건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미래를 위한 뮤지엄 정책을 재설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전략적이어야 한다. 물론 이 점이 중요하지만,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

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뮤지엄은 큰 변화 과정에 있으며, 이 위기는 혁신적인 기회일 수 있다.

Inkyung CHANG

지난 2월 25일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공식 폐관한 후, 한국박물관협회는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2월 한 달 동안의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조사했다. 이미 100여 개 뮤지엄의 수입은 예술인, 입주업체, 전시개발업체 등 파트너의 손실을 포함하여 크게 줄었다. 122개 뮤지엄 중 30% 이상이 2월에 문을 열었음에도, 한 달 동안의 예상 소득 손실은 100만 달러 이상(₩1,389,186,010)이었다. 국립기관과 달리 소규모 사립 뮤지엄은 지속적인 수입 없이 시설과 인력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직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월급은 삭감하고, 현금흐름 부족으로 무급휴가를 내도록 요청하였다.

코로나 19 위기가 뮤지엄에 끼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태가 사회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켰다는 것은 불가피하며,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단기간임에도 그 피해를 보면 뮤지엄이 이런 비상사태에 얼마나 취약한지 잘 나타난다. 건강과 안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회적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뮤지엄의 전통적인 교류와 전달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유명하고 풍족한 뮤지엄이 이미 웹 기반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있는 뮤지엄은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 뮤지엄의 콘텐츠를 마케팅할 방법이 없다. 뮤지엄 간의 디지털 활용 능력과 기반구조의 차이는 준비가 안 된 뮤지엄의 기능과 서비스의 질을 더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

길게 내다보아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방문객이 뮤지엄을 경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뮤지엄은 기존과 다른 관람객 층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분야의 파트너와 일할 수 있게 된 점이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항시적으로. 재개관을 기다리며, 재정적인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동안, 우리는 이 위기가 가져올 여파에 대비해 뮤지엄의 목적, 현행 운영 방법과 기능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새로운 혁신과 기회/ 미래를 위한 획기적 전환

John ROCA

뮤지엄은 이미 혁신적인 분야였으며, 이 위기 상황에서 전혀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에서 시작되는 것은 없으나, 혁신적인 변화가 위태롭게 되었다. ICOM이 교토에서 새로운 뮤지엄 정의를 제시하였으나, 결정을 연기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새로운 정의가 긴급히 필요하다. 우리는 사회적 지평에서의 문화 혁신과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 개발을 결합한 새로운 세대의 뮤지엄이 필요하다.

계몽시대로부터 계승된 지식의 공공기관으로서의 뮤지엄 개념은 개선되어야 한다. 디지털 혁명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지 기술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좀 더 변혁적인 개선을 위한 5가지 아이디어를 강조하고자 한다.

1. 내러티브 혁신: 소장품, 건물과 경관을 담을 수 있는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내러티브가 필요하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철저하게 혁신하기 위해 뮤지엄이 많은 분야 연구의 접점이 되도록 회복하여야 한다.

2. 유산 혁신: 최상의 디지털 자원을 갖춘 가상 뮤지엄도 소장자료나 대면 활동의 필요성을 없애지 못한다. 소장자료와 기록이 없는 뮤지엄은 금이나 부의 대체기능이 없는 믿을 수 없는 화폐와 같다.

3. 조직 혁신: 요즘 뮤지엄이 재택근무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 이는 공공 행정과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더 유연해졌기 때문이며, 세계적으로 도시 간 연결이 역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 추진하기에 적절한 때이다.

4. 시민 혁신: 디지털 환경에 지식과 유산을 더 잘 동원하여 문화와 교육을 통합하고,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광장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한다면 뮤지엄이 문화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5. 관광 혁신: 만약 디지털 참여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데 성공한다면, 뮤지엄은 목표를 다양화하고 방문객을 위한 모범사례를 규정하는 데 큰 도

움을 줄 수 있다. 참고로, ICOM CAMOC(ICOM, 국제도시박물관위원회)와 다른 여러 포럼에서, 도시 뮤지엄들은 도시에 살거나 방문하는 모든 시민의 해당 도시에 대한 권리의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뮤지엄이 혁신적이어야 하며, 이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하다. 접속할 때마다 돈을 낸다면? 일부 대형 뮤지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뮤지엄에게는 사회적 접근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순한 공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것이다.

Nathalie BONDIL

뮤지엄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떠오르고 있다. 이전과는 다르게 관람객을 주시, 고려, 접근해야 한다. IT가 중요해진 것이 자명하다. 뮤지엄은 ICOM과 OECD 가이드에서도 인정하듯이, 웰빙과 건강, 특히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치가 있다.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 아카이브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학예사가 소장품을 소개하는 것, 예술가의 창작 자료들과 교육이다. 캐나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에듀카트(Educart)’ 라는 플랫폼이 있다. 부모가 집에서 어린이가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올라 있고, 많은 학교도 활용한다.

뮤지엄의 사회적인 목적을 공고히 하는 것은 블록버스터 프로그래밍이 아니다. 코로나 19 위기에 적합한 위생 규칙을 지키는 것, 전시실에서도 양보다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들이다. 교토에서 토의된 정의와 같이 포용과 웰빙도 이러한 위기에 그 의미를 강화하여, 정의에 포함하고 반영할 적합한 기회이며, 이는 우리 사회와 도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사안이다.

Mattia AGNETTI

코로나 19 상황은 뮤지엄 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뮤지엄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같은 관람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나의 이슈를 제기한다면, 뮤지엄에서 일하는 전문직에 대한 투자를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싶다. 특히 뮤지엄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해서 더 발전시킬 필

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방식이 세계 모든 지역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대학교와 연계된 영역이 단지 학술적인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제부터는 뮤지엄의 운영에 관련한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직업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뮤지엄으로 진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뮤지엄이 전환점에 있기에 이러한 이슈는 반드시 ICOM의 플랫폼에서 토론해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최근 대중과 관람객의 니즈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이에 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뮤지엄은 더는 소장품이나 전시를 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 교류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를 논의하는 장소로 점점 변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진전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토론의 공간이 최소한의 보편적 영역(common ground)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공간에서 뮤지엄의 질 높은 관람서비스와 수준 높은 문화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

John DAVIES

디지털 참여에 관해 얘기하겠다. 디지털 관련 질문은 관람객의 디지털 참여가 이 위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보는 게 재미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한 해에 인구의 반이 뮤지엄을 방문하고, 그중 60%가 입장권을 사고, 자신이 관심 있는 전시 정보를 보기 위해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디지털 컬렉션에 대한 방문율은 그보다 훨씬 적다. 디지털 컬렉션을 보는 사람은 16% 정도이고, 디지털 투어를 활용하는 것은 11%뿐이다. 모든 뮤지엄이 온라인 투어나 디지털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방문과 실제 방문 사이에 위기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있다. 이 점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뮤지엄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디지털 고객을 늘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디지털 스페이스의 고객층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를 고민해야 한다. 내가 일하는 Nesta에서 1년 전에 설문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모든 문화기관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다. 모든 문화기관은 페이스북 계정이 있고, 트위터 등도 활용한다. 많은 기관이 영화를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도 한다. 11% 정도만 순수한 디지털 이벤트를 스트리밍하는 정도로 크게 그 비중이 높지 않았다.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영국의 상황이지만 문화기관의 구성원들은 스트리밍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소셜 미디어, 트위터 등에 뮤지엄 전문가, 큐레이터, 뮤지엄 직원 등이 문화기관, 문화기관의 구성원이 소셜 미디어에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관람객들과 공유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예전에도 물론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전에는 부수적인 일이었다면 지금은 중요한 일이 되었다. 뮤지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관람객들이 그런 뮤지엄 전문가들의 소통하려는 모습에 뮤지엄에 더 관심이 있게 되고, 그를 통해 더 넓은 관람객 층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Inkyung CHANG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과 기반 시설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지만 디지털 전시는 물리적인 전시와 다르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전시를 사진과 영상으로 전환하여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디지털 전시라고 여겼다. 하지만 디지털 뮤지엄 경험은 전혀 다른 것이다. 현재 디지털 뮤지엄 경험이 물리적인 뮤지엄 경험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엄청난 잠재력이 있으며 특히 아직 깊이 탐색해 보지 않은 새로운 마케팅 가능성이 있다.

유일한 어려움은 우리의 교육 배경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며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멋진 프로그램과 앱을 사용하더라도 방문객이 창의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겠나? 그러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배워야 한다. 기능이 많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소유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이 아니고, 현재 직원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이야기 한 대로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파트너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뮤지엄 전문직은 새로 정립될 것이다. 뮤지엄에 종사하기 위해 기존에는 학술적인 배경만 필요하였지만, 소통을 위해, 앞으로는 전적으로 새로운 기능이 있어야 한다.

Antonio LAMPIS

앞에서 후앙과 마티아스가 말한 것과 같이,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뮤지엄과 문화기관은 최근에 현대 사회에 발맞춰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뮤지엄은 대학과 협력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뮤지엄이 대학과 함께 일하고 있다. 지금은 Tivo 텔레비전과 함께 일하고, 새로운 지불 방법인 contactless 등 시스템 도구를 이용해, 뮤지엄에 들어오는 관람객의 수를 조절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극장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새로운 이야기들, 창조적인 이야기들을 쓰기 위해 작가들과도 일해야 한다. 뮤지엄이 앞으로 계속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넷플릭스 같이 되어야 한다. 관람객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관람객이 그 이야기를 통해 자기 자신의 경험과 연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뮤지엄의 새로운 도전 영역이다.

뮤지엄은 몇 년간 많이 변했다. 이탈리아는 소장품보다 관람객이라는 가치에 관심을 두는데 집중했다. 그 노력과 경험들은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데 큰 자산이 되고 있다. 3개년 뮤지엄 디지털 환경 개발 계획이 있었다. 이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 10,000명이 스마트워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년간 뮤지엄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기회다. 현대 미술관이건 아니건 간에, 이런 종류의 위기는 계속 다가올 것이다. 코비드가 아니더라도 테러리즘처럼 계속되는 위기들은 있었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 내부적으로 혁신적 변화를 이뤄나갈 시기이다. 앞으로 수년간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가고, 뮤지엄이 문화 영역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이다.

3. 뮤지엄 분야 지원 정책

Antonio LAMPIS

현재 코비드 상황으로 뮤지엄 대다수가 문을 닫았다. 이탈리아의 5,000 뮤지엄 중 400개 정도 되는 정부 뮤지엄이 매달 이천만(20 million) 유로의 손해를 본다. 이를 지원할 새로운 정부의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많은 타격을 받은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좋은 해결책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뮤지엄이 문을 닫아도 문

화 상품 같은 부분은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으므로 힘이 든다. 이탈리아에서는 이것은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뮤지엄은 문화기관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문화계 전반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Maciej HOFMAN

유럽 연합(EU)에서 문화는 실제로 유럽 연합 조약에 따른 지역 및 국가적 역량을 의미한다. 이것은 유럽 연합이 회원국에 대해 어떤 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도움과 지원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유럽 연합이 창의 분야 문화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압박과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는 유럽위원회에 요청하여 창조적인 유럽 프로그램(Creative Europe Programme)을 활용해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다. 유럽 뮤지엄 기관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이번 주에 발행된 보고서에는 41개 유럽 국가에 있는 600개 이상의 뮤지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들 유럽 네트워크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뮤지엄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유적, 공연예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EU 청소년 교육 및 문화 위원회와 연구 및 혁신 위원회 등은 화상 회의를 통해 27명의 새로운 문화 각료들과 만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물론 회원국들은 뮤지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해, 서로 다른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회의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유럽의 해결책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상황에 대한 유럽 연합의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유네스코(UNESCO)도 4월 22일에 문화부 장관(각료)들과 화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몇 주 동안 여러분은 구조적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유럽 연합이 실업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분의 자금을 제안할 수 있는지 또는 긴급 상황에서 더욱 유연한 제도로 국가 지원 조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유럽 연합의 여러 정책 논의에 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문화나 창조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회원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창조 분야에 대한 시각에 이 방법들을 적용할 것인지, 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

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옹호 단체와 네트워크들은 이러한 서로 다른 거대한 정치적 도구들이 문화 정책 부문의 이익을 위해 뮤지엄의 문화유산 작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창조적 유럽 프로그램으로 하는 작업은 가능한 한 많은 유연성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진행 중인 문화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마감 요청을 연장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평가해, 자금 지원 여부를 알려줄 것이다. 물론 현 상황에 맞게 약간 조정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사용 가능한 공공-민간 도구의 활용이다. 이것은 금융 기관을 위한 도구이므로, 공공 자금 금융 기관을 활용하면, 창조 분야에 대한 우대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장기 계획 역시 중요하다. 현재 유럽 연합에서는 향후 유럽 예산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은 7년씩 계획되기 때문에 2021~2027년 예산을 내고 있는데, 문화 부분에 대한 지원과 예산 확대가 꼭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문화 예산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0개 분야를 다루는 Create Europe 같은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 개발 부분이나 공공기관 등에 더 많이 지원하려고 한다. 이것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유럽 연합과 회원국 간의 정책적 협력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언급된 특정 문제들과 관련하여,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 문화와 웰빙, 뮤지엄의 새로운 테크놀로지 사용에 관한 질문, 또는 디지털 관람객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연계, 문화기관의 전반적인 회복력 검토 및 예술가들의 근무 조건 등 다양한 내용이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위원회가 지역 개발에 미치는 문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OECD와 맺게 될 향후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이는 현재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많이 반영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도시,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와 창조 분야에 대한 과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OECD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Joan ROCA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부 위탁으로 운영되어온 매우 불안정한 뮤지엄 생태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의적인 제도를 고민하고, 새로운 문화의

케인스주의 시도를 해야 한다(Keynesian economics,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정상상태를 회복하게 해야 한다는 이론). 여러 분야에서 케인스 경제학을 논하지만, 뮤지엄도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다수의 동인 가운데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1. ICOM: 19~20세기로부터 물려받은 뮤지엄은 더는 21세기 뮤지엄이 될 수 없다. 이미 이야기 한 대로, 뮤지엄의 정의에 관한 논의는 가능한 한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 혁신적이고 참여적인 환경을 통합하기 위해 우리는 새 정의가 꼭 필요하다. 여기에는, 새롭게 깨달은 뮤지엄 시대의 핵심단어인 ‘지식(knowledge)’ 이 들어가야 한다. 이미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이 점에서 ICOM의 역할이 중요하다.

2. OECD: 사회 계층의 포용을 위한 문화적인 틀로서, 또 더욱 지속 가능한 관광 일부로 뮤지엄이 지역 발전의 향상에 끼치는 역할에 관한 토론은 중요하다. 뮤지엄을 통한 지역 사회 개발에 관한 논의는 우리가 추진해야 할 주제다. 이미 OECD가 하고 있지만, 이제 더 중요해졌다.

3. 정부: 여러 단계의 정부에서 뮤지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반영된 케인스주의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다. 뮤지엄 분야는 자체의 특수성이 있으나 종종 무시된다. 중요한 일례로, EU는 일반적으로 계약자나 공공 입찰자 제도에서 문화 분야에는 예외성을 적용하는데, 특히 뮤지엄 분야에 그렇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보통 공공 입찰 제도에서 큰 조직도 있지만, 아주 작은 조직이 대다수인 뮤지엄 분야의 취약한 생태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 분야의 특이성에 관한 토론도 추진해야 하는 주제이다.

4. 도시: 도시는 새로운 시대의 실마리가 되어야 한다. 뮤지엄은 일상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뮤지엄을 특별한 존재로 여겼다. 뮤지엄은 도시 생활과 도시의 존재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일상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동시에 문화와 관광을 위한 대안적인 접근을 위한 최고의 방법일 것이다. 우리가 지역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으려 한다면, 도시를 통하여 사회적 응집력과 지속 가능한 관광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

5. 뮤지엄: 뮤지엄 자체가 기관의 목적, 내부 조직과 재정 구조에 대해 재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뮤지엄 분야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바르셀로나 역사 뮤지엄은 그동안 대학과 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뮤지엄은 다양한 직업에 의해 시민들이 공유하는 문화의 고점에 있다. 이런 지식의 장소는 대학과 직접 연계해야 한다. 뮤지엄은 대학의 지식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뮤지엄 자체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요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간헐있으니 사고가 더 선명해진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에 대해 생각할 좋은 시간이다.

Nathalie BONDIL

생산적인 연대의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태계에 존재하기에, 경쟁이 아닌 공동 창조, 공동 대응, 공동 발전이 필요하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뮤지엄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막는다. 지역 정부는 예술, 특히 예술가를 위한 긴급 재정을 지원한다. 퀘벡 지방 정부는 뮤지엄이 사회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 즉, 뮤지엄이 생존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의 일부로 더 넓은 의미에서 지역, 학교를 포용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길 요구한다.

또한, 뮤지엄을 돕기 위한 흥미로운 전략 가운데 민간 부문의 것도 다양하다. 뮤지엄 직원들은 일주일에 3~4일만 일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등 예외적인 방법을 택하면서 민간과 노조가 뮤지엄 유지를 위해 협의, 협동하여 노력한다. 연대 전략은 매우 깊은 영감을 준다. 며칠 전 유네스코는 “우리는 격리되어 있지만, 문화는 우리를 통합시킨다.” 라고 발표하였다. 이렇듯 문화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정부, 개인, 재단, 정부의 공공 정책 등 모든 영역의 지원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Mattia AGNETTI

웨비나를 끝내기 전에 뮤지엄이 필요한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운영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오늘 우리가 토론한 내용은 매우 유용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지만, 그런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중에 할 수 있는 일보다는 12개월 내 기관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적인 일, 특히 문화 영역과 뮤지엄 업계에서 재무 담당자에게 줄 수 있는 메시

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운영에 있어서 재정 문제는 중요하며 곧 다시 뮤지엄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사립과 공립기관 모두 고민해야 할 것이다.

Inkyung CHANG

후앙이 말한 것처럼 뮤지엄 내부에서 스스로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하여 고민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OECD와 ICOM이 협력하여, 이 위기가 뮤지엄에 끼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1년 이후 보고서가 나오게 말이다. 그러면 이 위기가 뮤지엄 분야에 끼친 파급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에 근거하여, 어떻게 다음을 준비하고, 업무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다. OECD와 ICOM이 함께 펴낸 ‘A Guide for Local Governments, Communities and Museums’의 후속 프로젝트로 이를 제시한다.

Peter KELLER

그동안 질문 받은 것은 사회가 필요한 것을 뮤지엄이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오늘날, 뮤지엄은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뮤지엄이 국가나 지역 또는 세대의 정체성을 정립하거나, 사회의 응집을 강화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전염병 유행의 트라우마가 있을 때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덜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지역 공동체의 웰빙과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뮤지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도구이다.

Pier Luigi SACCO 총평

매우 풍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논의들이 흥미롭게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쩌면 거대한 본성에 관한 실험인지도 모른다. 몇 달 전에 만약 ‘모든 문화기관이 한꺼번에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했으면, 아마도 공상과학 소설을 얘기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이것은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실험이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 이전과 이후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는 뮤지엄, 경제 그리고 사회 사이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되면서, 그것의 활용도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뮤지엄을 디지털 방식으로 방문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을 제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현재 우리는 뮤지엄에 대한 경험을 매우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 교회에 앉아있는 것 같이 뮤지엄 경험을 불편해하던 관람객들이 디지털 뮤지엄 경험을 통해 뭔가 익숙한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람층으로 새롭게 흡수되고 있다. 새로운 계층이 더해짐으로서, 관람객들이 뮤지엄에 대해 더 익숙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문화종사자의 태도도 변해야 한다. 전문적인 영역과 재정적인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간 뮤지엄이 멋진 디지털 혁신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이전에 뮤지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매우 느렸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은 뮤지엄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면이 위기에 맞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람객들이 어떻게 뮤지엄에 올 것인가를 생각하며 뮤지엄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뮤지엄은 실제적인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뮤지엄이 과연 사회적, 지식적 허브의 역할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이 위기에 대응할 것인지 등에 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새로운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더 고민해야 한다.

어느 부문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새로운 가치와 지식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뮤지엄과 문화기관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더욱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뮤지엄과 사회기관 간

새로운 생태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새로운 청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뮤지엄과 문화기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원에 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문화기관에 대한 지원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것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문화는 오늘날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록: 화면의 PPT 자료]

The poster features the OECD and ICOM logos at the top. The main title is 'Coronavirus (COVID-19) and museums: Impact, innovations and planning for post-crisis', with the date '10 April 2020 | 14.00-15.30 CET'. It lists partners: European Commission, World Cities Culture Forum, nesta, Fondazione di Venezia, and Unioncamere Veneto. Social media links for 'oe.cd/culture-webinars', '#OECDculture', and '#SustainableMuseums' are provided. The right side has a red background with icons for productivity, growth, and a hand holding a lightbulb.

OECD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Webinar

Coronavirus (COVID-19) and museums:

Impact, innovations and planning for post-crisis

10 April 2020 | 14.00-15.30 CET

in partnership with European Commission, World Cities Culture Forum, nesta, Fondazione di Venezia, Unioncamere Veneto

oe.cd/culture-webinars
#OECDculture #SustainableMuseums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뮤지엄:
영향과 혁신, 그리고 위기 이후의 계획

2020. 4. 10.(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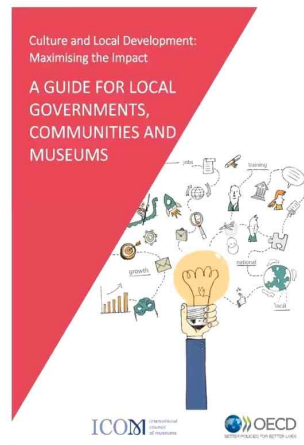
사회자

- 에카테리나 트라프키나(Ekaterina TRAVKINA),
OECD 문화· 창의산업과 지역 개발, 코디네이터

발표자

- 피터 켈러(Peter KELLER), ICOM 사무총장, 오스트리아
- 마티아 아그네티(Mattia AGNETTI), 베네치아 시립박물관 재단 사무총장,
이탈리아
- 나탈리 본딜(Nathalie BONDIL), 몬트리올 미술관 관장/학예실장, 캐나다
- 후앙 로카(Joan ROCA), 바르셀로나 역사박물관 관장, 스페인
- 장인경(Inkyung CHANG), 철박물관 관장, 대한민국
- 존 데이비스(John DAVIES), 네스타 창의 산업 정책과 증거 센터
(PEC/Nesta), 경제 연구원, 영국
- 안토니오 람피스(Antonio LAMPIS), 이탈리아 문화유산 관광부(MIBACT),
박물관 담당 사무국장
- 마치에 호프만(Maciej HOFMAN), 유럽 연합 교육문화 총국, 정책관
- 피에르 루이지 사코(Pier Luigi Sacco), OECD 교육문화위원회 특별고문,
IULM 대학 문화경제학 교수, 이탈리아

Museums as agents of economic change



경제 변화의 주체인 뮤지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 뮤지엄을 위한 가이드

1.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뮤지엄의 영향력을 활용한다.
 2. 뮤지엄의 역할에 기반하여 도시 재생과 공동체 발전을 구축한다.
 3. 문화 인식이 높은 창의적인 사회를 촉진한다.
 4. 뮤지엄을 포용과 건강, 복지의 공간으로 장려한다.
 5. 지역 개발에서 뮤지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



Coronavirus (COVID-19) and museums



Short and long term **impacts** of museums' closure



Emerging **innovations** and opportunities/ game-changers for the future



Policies to support the sector

코로나 바이러스(코비드-19)와 뮤지엄

- 뮤지엄 폐쇄의 장 · 단기적 영향
 -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혁신과 기회/ 획기적 전환
 - 뮤지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



Short and long term impacts



Reduction of earned revenues, charitable contributions and sponsorships:

- **Short/medium term:** financial sustainability of museums (especially small) is at risk
- **Medium/long term:** shrinkage of research and cultural activities

Jobs in museums and around:

- **Short term:** reduced wages and lay offs (temporary staff; external contracts including mediators, seasonal work, jobs related to exhibitions, publishing, events and other commercial activities).
- **Short/medium term:** structural threat to the survival of companies and freelancers part of museums ecosystem which will impact on other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which rely on these professionals for creative contents

Museums & local development:

- **Short-term:** abrupt withdrawal from local development projects
- **Medium term:** reduced capacities to contribute to local development projects

장 · 단기적 영향

수익과 기부금, 후원의 감소

- 단기/중기: 뮤지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특히 소규모 뮤지엄) 위협
- 중기/장기: 연구와 문화 활동 축소

뮤지엄과 인접 영역의 일자리

- 단기: 임금 삭감과 해고(비정규직; 전시, 출판, 행사 및 기타 상업 활동을 포함한 외부 계약)
- 단기/중기: 기업과 프리랜서의 생존에 관한 구조적인 위협은 뮤지엄 생태계의 일부로, 창의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전문가에 의존하는 관련 문화와 창의 분야에 영향을 끼침

뮤지엄과 지역 개발

- 단기: 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갑작스러운 철회
 - 중기: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감소
-



Emerging innovations/game-changers for the future



#MuseumsAndChill (ICOM), #museumathome #culturetogether (Belgium),
#CultureChezNous (France), #MetAnywhere (Metropolitan Museum of Art),
#myhomeismymuseum (Stuttgart).

- Increased **recognition of the role of culture** plays for our society and in particular to **people's well-being and mental health**
- Increased attention to the **link between culture and education**
- Increased **levels of trust in cultural institutions** that can be capitalised on in the recovery
- **Digital becomes more important:** stronger cross-fertilization with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virtual and augmented realities; stronger cross-overs between culture and education, culture and well-being.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혁신과 기회/ 획기적 전환

#MuseumsAndChill (ICOM), #museumathome #culturetogether (Belgium),
#CultureChezNous (France), #MetAnywhere (Metropolitan Museum of Art),
#myhomeismymuseum (Stuttgart).

- 우리 사회에서 특히 사람들의 웰빙과 정신 건강을 위한 문화의 역할에 대한 인식 증대
 - 문화와 교육 간의 연관성에 관한 관심 증가
 - 사회를 복구하는데 자본화할 수 있는 문화기관의 역할에 대한 신뢰도 증가
 - 디지털이 더욱 중요해진다: 가상 및 증강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의 상호 교류 강화; 문화와 교육, 문화와 웰빙 사이의 교차 강화
-



Policies to support the sector



Short/ medium term:

- Direct aid, subsidies, emergency financial assistance (to smaller museums) and emergency funds for maintenance of museum facilities
- Tax and rent reliefs
- Income support measures including freelance professionals
- Inclusion of small non-profit businesses, including many museums, in support programmes designed to help small businesses continue paying employees
- Measures to support cultural micro-firms (tax reliefs, access to credits)
- Tax incentives for donations

Medium/ long term:

- Stronger partner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museums for the recovery

문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단기/중기:

- 소규모 뮤지엄에 대한 직접 지원, 보조금, 긴급 재정 지원과 뮤지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상 운영 자금
- 세금과 임대료 경감
- 프리랜서 전문가를 포함한 소득 지원 방안
- 많은 뮤지엄을 포함한 소규모 비영리 사업체를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이 고용인에게 급여를 지속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 초 소규모 문화사업체를 위한 지원책(세금 경감, 신용 대출 기회)
- 기부금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중기/장기:

-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뮤지엄 간 파트너십 강화
-